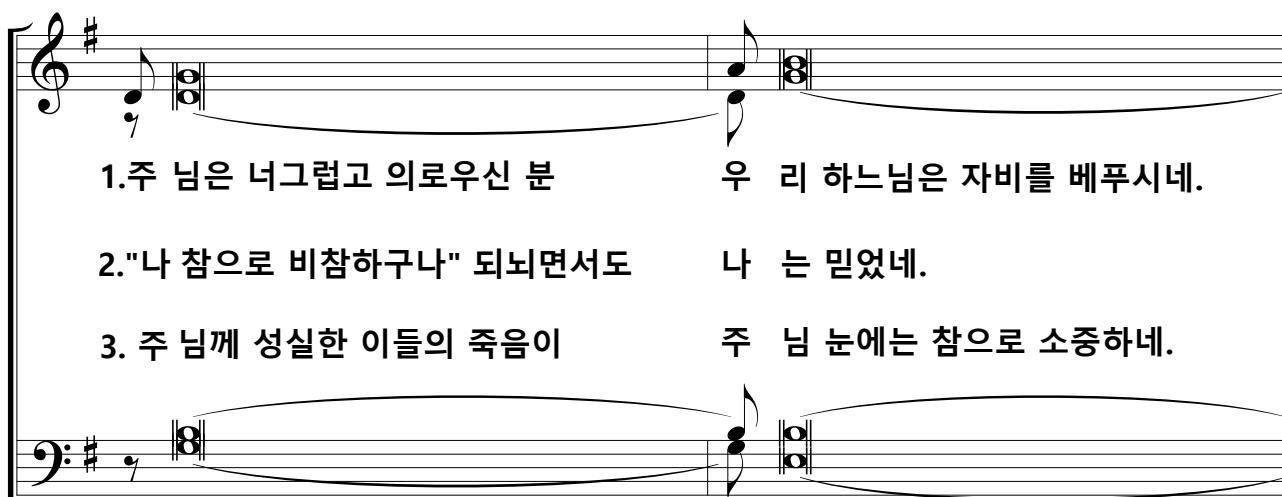


위령의 날 둘째미사 화답송


시 편 116(114-115), 5-6. 10-11. 15와 16 ㄱ ㄴ ㄹ



(후렴) 나는주님 앞에서 걸어가리 라. 살아있는 이들의땅에서 걸으리- 라.



1.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.
2. "나 참으로 비참하구나"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.
3.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.



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 없는 나를 구해 주셨네.
문득 놀라 나는 말하였네. "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."
아, 주님, 저는 당신의 종.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.

위령의 날 둘째미사 알렐루야

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

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, 찬미받으소서.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 이다.